

[더블유홀딩컴퍼니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보고서]

■ 일반사항

구분	정기주주총회
일시	2017. 03. 29 (수) 오전 9시
장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93길 47 서울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소극장(가온누리)

■ 상정 의안

No.	의안
제1호	제22기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안)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2-1. 사내이사 최진욱 선임의 건 (신규선임)
제4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승인의 건
제5호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6호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주목해야 할 의안 분석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의안 내용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만 발췌함)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제 31 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u>3 인 이상 8 인 이내</u> 로 하고,	제 31 조 (이사의 수) <u>3 인 이상 5 인</u>
<신설>	제 32 조의 2(이사의 해임) ① 외부로부터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 등으로 인한 주주총회에서의 <u>이사 해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100 분의 70 이상으로 하되 그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이상의 찬성으로</u> 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요건을 변경하고자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에

	는 제 1 항에 정한 결의요건에 의하여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p>제 36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p> <p>③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임기 만료 이전에 외부의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위반, 임무 해태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에게 전항의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하는 퇴직금 이외에 퇴직보상액으로 해당 이사가 <u>대표이사라면 50 억원, 이사에게 30 억원을 별도로 지급한다.</u></p> <p>④ 제 3 항의 조항을 개정 또는 폐기할 경우 그 효력은 개정 또는 폐기를 결의한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 후 발생한다.</p>

·○ 의안 분석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의 주된 내용은 이사 정원 제한과 이사 해임 방어 장치 등 경영권 방어를 위한 독소조항임. 정관에 경영권 방어 조항을 삽입하게 되면 기존 경영진이 지분율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무능한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인해 방만한 경영이 야기될 수 있으며 폐쇄적인 기업 지배구조로 인해 기업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더블유홀딩컴퍼니의 최대주주는 오션인더블유이며, 오션인더블유의 대표이사는 원영식이며, 최대주주는 그의 아들임. 그리고 원영식은 더블유홀딩컴퍼니의 동기이사로 상근하고 있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블유홀딩컴퍼니를 지배하고 있는 원영식은 현재 주가조작 등의 이유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임.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이 불법 범죄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인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존 경영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정관의 경영권 보호 장치 삽입은 향후 기업 지배구조와 기업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므로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함.

참고로 더블유홀딩컴퍼니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기업 초록뱀미디어 역시 동일한 내

용의 경영권 방어 장치를 정관에 새로 삽입하는 의안을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한 상황임.